

貂皮考

충청대학 의상디자인과

정복희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춘순

目次

| | |
|----------------------------|------------------------|
| I. 머리말 | VI. 中原王朝 朝貢物로서의 貂皮 |
| II. 中國古代 貂皮의 產地 | VII. 清代 冠服의 貂皮 |
| III. 古代의 貂皮·貂裘 및 貂尾飾 | VIII. 清代 少數民族 貢物로서의 貂皮 |
| IV. 古代 中國人의 冠服 및 裝飾으로서의 貂皮 | IX. 맺는말 |
| V. 日本에 보낸 渤海國의 貂皮 | 참고문헌 |
| | ABSTRACT |

I. 머리말

복식의 역사는 獸皮의 着用으로 시작되어 추운 지방에서는 보온을 위하여, 더운 지방에서는 지위와 장식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獸皮는 문명의 발달에 따른 삼림의 파손 등으로 획득이 어렵게 되면서, 점차 진귀한 복장재료가 되었다. 獸皮의 가치는 그 희소성과 모피의 특성인 보온성 그리고 그 審美性으로 인하여 그의 작용은 계급의 상징이 되었고, 나아가 富의 상징으로까지 변화하였다. 戰國時代 齊國의 宰相인 孟嘗君이 秦國에서 昭王(전306-251)이 그를 죽이려 하자, 君은 소왕의 애첩인 幸姬에게 狐

白裘 한 벌을 주고 도움을 받아 탈출했다는 故事¹⁾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裘衣에 대한 선호를 알 수 있다.

야생의 수피로 신체를 보호하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商代에는 이미 통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가 있었다²⁾. 역사적으로 獸皮 動物의 확보를 위한 강렬한 투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일이 있었다. 즉 北美에서 원주민들의 영토가 백인들에 의해 점령당했던 사실은 이러한 예이며, 16세기의 러시아를 비롯한 列國의 시베리아 진출 등도 바로 모피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1) [史記·孟嘗君列傳] 孟嘗君使人抵昭王幸姬求解 幸姬曰 妾願得君狐白裘 此時孟嘗君有一狐白裘 直千金 天下無雙入 秦獻之昭王 更無他裘 孟嘗君患之 徧問客 莫能對 最下坐有能爲狗盜者 曰 姬能得狐白裘 乃夜爲狗 以入秦宮藏中 取 所獻狐白裘至 以獻秦王幸姬

2)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知識產業社(1993), p.177.

추운지방에서의 가장 원시적인 보온을 위한 최초의 의복은 짐승가죽을 연결하여 허리나 어깨에 두른 형태였으나, 나중에는 삼針과 筋絲를 사용하여 가죽을 서로 잇대어 의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야생의 熊皮나 鹿皮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사람들이 가죽을 기르게 되면서 羊皮는 중세에 사용된 가장 일반적인 재질이었던 것을 그림이나 조각에서 볼 수 있다.

온대지방에서는 특수한 동물에서 획득된 毛皮나 머리·발톱·꼬리같은 동물의 특수한 부분을 지위와 장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동물의 일부를 장식하는 것은 동물의 육체적 힘을 전승 받을지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獸皮를 위한 동물 중에서 크기는 비교적 작지만 역사적으로 동서양에서 가장 고귀하게 취급되었던 동물에 담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이 모피를 왕실 전용으로 인식하여왔고, 조선시대에는 담비가죽을 “貂皮”라 하여 당상관 이상의 관위를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貂皮는 색채가 매우 아름답고 윤택이 나며, 털이 부드럽고 가볍고 보온력이 뛰어나 모피 중 최상등급으로 취급되어왔다.

담비는 족제비과에 속하는 산짐승으로 담부라고도 하며, 한자로는 貂·山獺·貉·獬·央史·貂이라고도 한다. 크기는 고양이 정도이고, 귀가 크며 꼬리가 길다. 털색이 황색인 것은 黃貂라고 하고, 암흑색인 것을 煤貂라고 한다. 영어로 sable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어의 sobol에서 유래하는데, 이것은 시베리아 방면의 원주민 말이었다고 한다.

중국의 동북지방 소수민족 복식을 연구하던 중, 특히 清代에 변방지구의 貂皮가 귀중한 貢物로 되어 있어, 이것이 戰國時代 趙武靈王의 “貂蟬冠”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 것이 본 논문의 동기이다. 그리하여 貂皮가 어느 시대부터 복식으로 등장하고, 어떻게 사용되어 왔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근대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조선조 문헌에 초피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이 초피가 우리나라의 저명한 토산품으로 유명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 연구의 범위상 다루지 못하고,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연구의 가설로는 첫째, 초피의 사용이 적어도 전국시대 조무령왕으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며, 둘째, 모피로서의 초피는 역대 어느 왕조보다 청대관복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세웠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시대적으로는 중국의 상고시대부터 청말에 이르기까지이며, 복식에서의 초피의 사용과 청대의 동북소수민족의 貂皮 貢物 상황을 찾아 초피의 역할을 고찰하기로 한다.

II. 中國 古代 貂皮의 產地

[後漢書]에 우리나라의 옛 영토였던 滿洲 즉 吉林省에 위치했던 挾婁에서 좋은 貂皮가 생산되었다고 한다³⁾. [三國志]에서도 挾婁에서 붉은 貂皮와 좋은 貂皮를 생산하였다⁴⁾. 한편 [三國志]는 肅慎에서도 貂皮 400枚를 보내왔다⁵⁾고 하며, 나아가 [晉書] 肅慎傳에도 貂皮를 進貢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肅慎은 백두산 일대에서 수렵에 종사하던 민족이었으므로, 貂皮가 동북지방의 名産으로서 중국에서 漢代 및 晉代에 중국인에게 잘 알려져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옛 영토였던 渤海에서도 일본에 貂皮를 보낸 사실이 [續日本紀]에 기재되어 있다

3) [後漢書·挾婁傳] 土地多山險人形似夫餘而言語各異有五穀麻布出赤玉好貂

4) [三國志·挾婁傳] 挾婁出赤玉好貂今所謂挾婁貂足也

5) [三國志·陳留王本紀] 景元3年4月, 遼東郡言肅慎國遣使重譯入貢獻其國弓三十張貂皮四百枚

6) [續日本紀] 卷10 聖武天皇 神龜5年, 天皇太極殿 王臣百寮及渤海使等朝賀 (中略) 貂皮三百張

6). 나아가 [渤海國志長編]에도 “女眞에는 貂鼠라는 짐승이 많다고 하였으며 明나라 一統志에는 女眞 땅에서 貂鼠皮가 생산된다고 하였다. 高士奇의 扈從 日錄에는 貂鼠는 일명 松鼠로서 소나무 숲속에서 소나무 열매를 즐겨 먹으며 살고 있는데, 이 담비의 가죽은 주민들의 衣食用으로 이용되며, 貂鼠는 간단히 말해 貂라고 한다. 渤海에서 唐나라에 조회하고 물품을 바치는데 貂鼠皮를 포함한 적이 대체로 네 차례 있었다. 楊中遠이 日本에 사신으로 갔을 때 貂裘를 어느 사람에게 기증하였다. 또한 730년과 738년에 貂鼠皮를 唐나라에 보냈는데, 貂字와 豹字는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 貂鼠 이외에 豹鼠가 있는 것은 아니다”⁷⁾고 기록되어 있다.

東北地方의 貂皮는 예전부터 “關東의 三寶” 혹은 “東北의 三寶”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곳은 오늘날 遼寧·吉林·黑龍江의 三省을 말한다. 三寶란 문헌에 따라 貂皮·人參·烏拉草⁸⁾, 혹은 貂皮·人參·鹿茸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貂皮는 중국의 동북지방의 少數民族과 中國王朝 사이의 중요한 貢物이기도 하였다. [說文]⁹⁾에도 貂皮는 丁零國에서 생산된다고 하니, 丁零¹⁰⁾은 漢代의 夷

狄 種族의 하나로 匈奴의 속국이 되었으며 鮮卑의 북쪽에 있었으며 지금은 외몽고 북경을 넘어 바이칼호 부근에 있는 러시아령이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貂皮의 생산지는 北으로는 지금의 바이칼호 부근에서 시베리아와 東北 三省과 백두산 밀림지대였음을 알 수 있다.

Ⅲ. 古代의 貂皮·貂裘 및 貂尾飾

武冠에 尖飾하는 貂의 皮에 대하여 [晉書] 輿服志에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즉 胡人이 이마를 따뜻하게 하려고 貂의 皮를 사용했으므로, 晉에서도 武冠에 貂皮가 사용되었다. 漢에서는 赤黑이, 王莽의 新¹¹⁾에서는 黃色의 貂皮가 사용된 것은 각각 그 숭상한 복색에 의한 것이다¹²⁾.

王國維의 [胡服考]에 貂鼠尾¹³⁾·貂蟬¹⁴⁾·貂尾¹⁵⁾ 등의 단어가 보인다. 여기서 侍中·中常侍는 모두 항상 帝王의 좌우에서 시종드는 官名으로 이들이 黃金附蟬으로 紋飾을 하고 貂尾로서 장식을 한다는 것이다. 貂鼠尾나 貂尾는 같으며 모두 담비의 꼬리 털을 말한다¹⁶⁾.

貂蟬은 [後漢書·輿服志]¹⁷⁾에 貂尾와 蟬羽를 말

7) 金炎淑 編著의 [韓國服飾史資料選集 上古·高麗篇] 381項의 [渤海國志長編]해설을 참고하였음.

8) 草名으로 만주 吉林産으로 겨울에 신발 속에 이 풀을 넣어 보온을 취하며, 이것을 넣어 만든 신발을 靴靸이라고 함.

9) [說文] 貂 鼠屬 大而黃黑 出胡丁零國. 정령은 漢代 夷狄의 種族의 하나로 鮮卑의 북쪽에 있었으며 지금의 바이칼호연변의 伊爾庫次克 부근으로 지금은 외몽고의 북방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령이다. 丁零·丁靈이라고도 함

10) [漢書·匈奴傳] 後北服 渾窳 屈射 丁零 隔崑龍 新犁之國

11) 왕망이 漢을 멸하고 세운 나라로, 15년만에 멸망함

12) [晉書·輿服志] 或以爲北土多寒 胡人常以貂皮溫額 後世效此 遂以附冠 漢貂用赤黑色 王莽用黃貂 各附服色所向也

13) 王國維 [胡服考], 侍中 中常侍加黃金附蟬 貂鼠尾飾之

14) 上揭書, 趙武靈王 效胡服時 施貂蟬之飾

15) 上揭書, 武冠 一曰武弁大冠諸武官服之 侍中 中常侍 加黃金附 附蟬爲文 貂尾爲飾 謂之趙惠文冠

16) [本草·貂鼠] 釋名, 栗鼠 松狗 時珍曰 貂亦作 崖鼠云 此鼠好食 栗及松皮 夷人味爲栗鼠松狗 集解 時珍曰 按許慎說文云 貂鼠 尾大而黃黑色 出丁零國 今 遼東高麗 及女眞韃靼諸胡皆有之

[五代史·四夷附錄三 回鶻] 其地出玉聲牛 綠野馬 獨峯駝 白貂鼠 云云

[岑參 胡歌] 黑姓蕃王貂鼠裘 葡萄宮錦醉纏頭

17) [漢書·劉向傳] 青紫貂蟬 充盈帽內

하는 것으로 古代 江公顯官 冠帽上의 장식물이며 그 제도는 漢代 武冠에서 시작한다. [宋史·輿服志]¹⁸⁾에 貂蟬冠을 朝服 冠飾의 하나로 삼고 있다. 明代도 貂蟬冠을 宋代를 습용하였으며 [明史·輿服志]에 그의 제정은 洪武26년에 이루어졌다. 清代에는 貂蟬冠의 제도는 없었으나 暖帽로 그것을 대신 하였다.

貂蟬은 貂尾와 蟬羽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담비의 꼬리와 매미의 날개로 장식하는 것을 말하며, [三國志]의 呂布의 妻를 “貂蟬”이라고 한 것은 當代 최고의 美人을 말하는 것이다. 貂蟬冠은 담비의 꼬리와 매미의 날개 모양으로 장식한 官人의 冠을 말한다¹⁹⁾. 그리고 貂帽은 담비털로 만든 모자²⁰⁾를 말한다.

나아가 “貂錦”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貂皮나 아름다운 錦으로 된 戰袍를 말하며 또한 그것을 입은 兵士를 말하기도 한다²¹⁾. “貂褂”는 貂皮를 안감으로 넣은 褂子를 말하는 것으로 清代 冠服에 貂褂를 착용하였다²²⁾.

“貂璫”은 漢代 中常侍의 冠으로, 貂尾로 장식하고 黃金의 玦玉이 있다. 후에는 中常侍라는 관직에 宦者를 채용했음으로 널리는 宦官을 말한다²³⁾. “貂納”은 貂와 豹을 말하는 것으로 豹은 원숭이 屬으로 前足이 없다²⁴⁾. “貂馬”는 담비와 말을 말하며²⁵⁾, 역대 중국의 변방민이 中宗왕조에 바친 貢物로 많았다. “貂布”는 담비의 皮를 말한다²⁶⁾. “貂狽”는 담비와 원숭이를 말하는 것으로, [魏志]에 夫餘에서 초유가 생산되었다고 한다²⁷⁾. “續貂尾”라는 말은 담비가 부

[後漢書·輿服志下] 武冠 一口武弁大冠 諸武官冠之 侍中 中常侍加黃金璫 附蟬爲文 貂尾爲飾 謂之 趙惠文冠. 徐 [升庵外集] 世傳 呂布妻名貂蟬

廣曰 蟬 取其清高 飲露而不食 貂紫蔚柔潤而毛采不彫灼

[徐廣·車服雜志] 侍臣加貂蟬者 取其清高飲露而不食也

[事物紀原·冠冕首飾部·貂蟬] 一曰 武弁大冠 侍中冠之 金璫左貂 昔趙靈王胡服也 秦始皇滅 趙以賜 侍中 故爲侍中之服

- 18) [宋史·輿服志 四] 貂蟬冠一名籠山 織藤漆之 形正方 如小山狀 飾以銀 前有銀花 上綴玳瑁蟬 左右爲三小蟬 銜玉鼻 左插貂尾 三公 親王侍祠大朝會 則加於進賢冠而服之
- 19) [宋史·輿服志] 貂蟬冠 一名 籠山 織藤漆之 形正方 如小山狀 飾以銀 前有銀花 上綴玳瑁蟬 左右爲三小蟬 銜玉鼻 左插貂尾 三公親王侍祠大朝會 則加於進賢冠而服之
- 20) [宋史 眞宗紀二] 左右進貂帽裘裘
[袁桷 送蘇子寧和林郎中韻詩] 貂帽護寒沙 冰天閱歲華
[清會典事例 禮部] 耆老兵民商賈人等准用素緞素紗綾緞絹紡絲各色布 准戴冠帽 狐皮帽
- 21) [劉禹錫 和白侍郎送令狐相公鎮太原詩] 十萬天兵貂錦衣 晉城風日斗生輝
[陳陶 隴西行] 誓掃匈奴不顧身 五千貂錦喪胡塵
- 22) [清會典事例·禮部·冠服] 藍袍紅青褂 或 貂褂 均不褂 朝珠
- 23) [後漢書·朱穆傳] 乃上疏曰 案漢故事 中常侍參選士人 建武以後 乃悉用宦者 自延平以來 浸益貴盛 假貂璫之飾 處常伯之任. [注]璫以金爲之 當冠前附以金蟬也 漢官儀曰 中常侍 秦官也 漢興 或 用士人 銀璫左貂 光武以後 專任宦者 右貂金璫 常伯侍中也
- 24) [後漢書·鮮卑傳] 又有貂納輝子 皮毛柔蝮故天下以爲貂納名裘 [注] 貂 屬 並鼠屬 豹 狽屬也 [韓書·四夷 夫餘國傳] 出善馬及貂納美珠
- 25) [吳志 吳主孫權傳] 魏遼東太守公孫淵 云云 稱藩于權并獻貂馬
[孫楚 爲石仲容與孫皓書] 葛越布於朔土 貂馬延乎吳會
- 26) [後漢書·東夷 東沃沮傳] 貢其租稅 貂布 魚鱸 海中食物
- 27) [魏志·東夷夫餘傳]
- 28) [桃花扇·媚座] 隨朝待漏 猶如狗續貂尾

족하여 狗尾로 이것에 대신한다는 것으로²⁹⁾, 德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여 微賤한 사람이 여기에 대신한다는 것이다. “貂不足狗尾續²⁹⁾”이라는 말도 貂蟬의 冠을 쓸 수 있는 德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대한 미친한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로 조정에 출입하는 사람이 많음을 뜻하는 것이다.

IV. 古代 中國人의 冠服 및 裝飾으로서의 貂皮

중국은 上古부터 일찍이 獸皮의 裘를 착용하고 있었다. [中論]에 의하면 “救寒莫如重裘”라 하여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裘衣를 겹쳐 입는다고 하였다. [周禮] 天官에 “司裘”라는 職이 있어 裘衣만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었으니 이미 裘皮착용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商周대에 天子가 하늘에 제사지낼 때 黑羔皮의 大裘를 입는다³⁰⁾고 하였다. [禮記·玉藻]에 “君衣狐白裘”라 하였으니, 周代의 長은 狐白裘를 입고 있었다. 大人 貴族은 錦衣狐裘로 [詩·秦風]에 “君子至止 錦衣狐裘”라고 하였다. 周代에는 羔皮·狐皮를 가장 진귀하게 여겼고, 다음으로 狼皮·狗皮·老羊皮 등이었다³¹⁾. 그리고 犬羊皮로는 庶民의 裘衣를 만들었다.

[戰國策]에 “千金之裘 非一狐之腋”이라 하여 狐裘 중 狐白裘가 제일이고, 士는 狐白을 입지 못했다. [玉藻]에 “君之右虎裘 厥左狐裘 君子狐青裘 羔裘”라 하여 士大夫가 입을 수 있는 裘衣를 말하고 있

다. [詩·小雅]에 “舟人之子 熊羆是裘”라고 하며, [玉藻]에 “犬羊之裘 不文飾也”라고 하여 熊皮나 犬羊皮는 庶人이 입을 수 있는 裘衣였다.

[墨子·親士]에서 말하길 “千鎰之裘 非一狐之白”이라 하여 한 벌의 狐白裘는 千金의 가치가 있었다. [史記·趙世家]에서도 “千羊之皮, 不如一狐之腋”이라 하는 것은 羊皮는 얻기쉬우나, 狐白은 얻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戰國時代에는 白狐裘³²⁾를 가장 진귀하게 여겼고, 다음이 黃狐裘였다. 여기서 白狐裘는 여우의 겨드랑이 털로 만든 것으로 狐白裘라고도 하였다³³⁾. 이리하여 裘衣는 중국에서 上古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나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毛皮종류를 구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제목인 貂皮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史記] 貨殖列傳³⁴⁾에 素封의 富豪가 財產種를 열거하는 가운데 “狐貂裘千皮”라는 말이 있으며, [戰國策]에 “黑貂之裘 黃金百鎰³⁵⁾”라 하여 貂裘가 매우 진귀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고대 중국의 貂裘史料로서 매우 주목해야 할 구절이다. 그리고 [胡服考]에서 말하는 [戰國策]의 貂皮가 중국인에서 알려진 것은 戰國時代末 趙武靈王代로, 상고 중국에 있어서 貂皮·貂裘가 羊裘·狐裘와 같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은 貂裘 등의 사료가 狐羊의 裘에 비하여 적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貂皮가 대부분 동북방면에서 산출되고 그 용도도 狐羊皮에 비교하여 협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9) [符書·趙王倫傳] 倫諸黨皆登卿相 至於奴卒厮役 亦加以爵位 每朝會 貂蟬盈座 時人爲之諺曰 貂不足狗尾續

30) [周禮·天官·司裘] 司裘掌爲大裘 以供王祀天之服 [注]鄭司農云 大裘 黑羔裘 服以祀天 示質

31) 黃能馥·陳娟娟 編著,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1955), p.33.

32) 狐裘는 여우 腋下의 白毛로 만든 皮衣. 고대로부터 중국에서 珍貴하게 여겨 諸侯의 朝服으로 하였다. 狐白裘라고도 함. [詩·秦風·終南] 君子至止 錦衣狐裘, [禮·玉藻] 狐裘 黃衣以裼之, [論語·鄉黨] 黃衣狐裘, [禮·玉藻] 君衣狐白裘 錦衣以裼之, [史記·孟嘗君傳] 孟嘗君有一狐白裘 直千金 天下無雙入秦 獻之昭王

33) 黃能馥·陳娟娟 編著, 전제서, p.27.

34) [史記] 卷129 貨殖列傳第69, 狐貂裘千皮 羔羊裘千石 旃席千具

35) [戰國策] 卷18 趙策, 蘇秦說李兌口 李兌送蘇秦明月之珠 和氏之璧 黑貂之裘 黃金百鎰 蘇秦得以爲用 西入於秦 “鎰”은 고대중국의 무게의 단위로 20兩을 말함. [孟子·梁惠下] 雖萬鎰必使玉人彫琢之[注]二十兩爲鎰

貂皮가 중국인에게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은 漢代以後이다³⁶⁾. [後漢書] 輿服志³⁷⁾에 먼저 보이는 것은 冠帽의 裝飾에서 비롯된다. 戰國時代 趙國에서 수용된 北狄의 風習이, 秦漢時代의 冠帽장식이 되고, 결국 後漢時代에는 武冠의 장식이 된다. 또한 [漢書] 楚元王傳³⁸⁾에 의하면 前漢時에 이미 貂蟬을 高位大官의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後漢書] 東夷傳의 扶餘와 挹婁의 기사에 만주방면의 貂皮가 後漢시대에 중국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있다는 것과 부합된다.

당시 貂裘는 貴人の 의복으로 표현되어 있으며³⁹⁾, 또한 [三國志]에 扶餘에서는 貴人들은 담비가죽의 갖옷을 즐겨 입는다는 기록이 있다⁴⁰⁾. 그리고 魏晉시대에는 “貂裘換酒”⁴¹⁾, 詞曲 [賀新郎]에 貂裘換酒⁴²⁾라는 표현으로, 貂裘로 換酒했다는 것은 당시 晉代에 貂裘가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漢書] 武五子傳⁴³⁾과 元后傳⁴⁴⁾에서 笄灼과 孟康의 註釋을 보면, [後漢書] 輿服志의 侍中·中常侍의 冠服의 貂尾裝飾 제도가 이미 前漢時代에

도 존재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漢代에 이미 侍中·中常侍 등의 관복의 장식으로 黑貂·黃貂의 꼬리털을 사용한 것은 상기 여러 사료에서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또한 貂尾蟬羽 장식에 대해 연상되는 것은 後漢末의 呂布의 “貂蟬”을 들 수 있는데, 중세 중국역사에 있어서 유명한 것은 續貂로서 [晉書]에 故事가 있다⁴⁵⁾. 이것은 西晉의 惠帝永寧元年의 일로 續貂는 晉의 趙王倫黨이 모두 卿相에 올라 奴卒에 이르기까지 爵位를 주어 帽傘마다 貂蟬이 자리에 넘치고 있어, 當代 사람들이 속담을 만들어 “貂不足 狗尾續”이라는 故事를 만들었다. 貂는 貂尾로 만든 侍中の 冠을 의미하나 華美한 것에 粗惡한 것이 계속된다는 의미이다. [宋史]에도 冠服으로 貂皮를 사용했다⁴⁶⁾.

漢代에는 中常侍의 武弁大冠에 黃金璫附蟬 및 貂尾의 장식이 있었다. 漢代의 대표적인 宮廷 詩人인 張衡(78-139)의 賦에 의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貂의 檐褸를 보냈는데, 무엇으로 이것에 보답할 것인가

36) 中山久四郎, 貂皮貂裘考(史潮4-3), p. 6.

37) 註16) 참조

38) [漢書] 卷36 楚元王傳第六, 今王氏一姓乘朱輪華轂者二十三人 青紫貂蟬充盈幃內 魚鱗左右

39) [戰國·策]說 秦王 冉上而說不行 黑貂之裘敝 黃金百斤盡 資用乏絕

[淮南子·說林訓]貂裘而雜 不若狐裘而粹

[魏文帝·豔歌何嘗行]中兒被貂裘

[北史·裴矩傳]帝大悅 賜矩貂裘及西域珍器

40) [三國志] 卷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扶餘, 大人加狐狸狽白黑貂之裘

41) [晉書·阮孚傳]嘗以 金貂 換酒 復爲所司 彈劾 帝宥之

42) [詞譜] 前略, 貂裘換酒 長安市句 名貂裘換酒

43) [漢書] 卷63 武五子傳 第33, 旄頭先戲 郎中侍從者著貂羽 黃金附蟬 皆號侍中 [註]笄灼曰 以翠羽飾冠也 師古曰 貂羽 以貂尾爲冠之羽也 附蟬 爲金蟬 以附冠前也 凡此旄頭先驅 皆天子之制也 以貂羽附蟬 又天子侍中之飾 王僧爲之

44) [漢書] 卷98 元后傳 第68, 白莽篡位後 知太后怨恨 求所以媚太后無不爲 然愈不說 莽更漢家黑貂 著黃貂 又改漢正朔伏臘日 太后令其官屬黑貂 [註] 孟康曰 侍中所著貂也 莽更漢制也

45) [晉書] 卷59 趙王倫列傳, 每朝會 貂蟬盈坐 時人爲之諺曰 貂不足 狗尾續

46) [宋史] 王全斌傳, 衣紫貂裘帽 以視事

47) [文選] 29 張衡 四愁詩, 美人贈我貂襜褕 何以報之明月珠

에 明月珠가 좋다⁴⁷⁾고 하여, 貂皮를 明月珠⁴⁸⁾에 비교하고 있어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後漢書] 輿服志에 “貂錯”⁴⁹⁾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貂의 모습을 象嵌한 것이라는 說⁵⁰⁾에 공감 이 간다. 그리고 漢代에 侍中·常侍의 冠에 貂尾와 金璫을 꽂고 蟬을 부쳐 장식을 하여 珥貂라 하였다⁵¹⁾. “珥”라는 말은 꽂는다는 뜻이다. 나아가 珥貂라는 말은 轉化되어 貴族이나 顯宦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南史]에도 珥貂⁵²⁾는 지위가 높은 관리를 말하고 있고, [唐書] 百官志에도 珥貂의 기록이 있다⁵³⁾. [隋書] 禮儀志에 “內常侍右貂 金璫 銀附蟬”에서 蟬紋을 銀으로 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籠冠上에 貂尾의 형상을 꽂는 것은 北魏孝昌 3년 寧氏石室 線雕人物 중에도 발견된다. 宋代에 이르러 貂尾 대신에 雉尾로 교체되고, 元시기에는 鵬羽(일반적으로 큰새)로 바뀐다.

宋代에는 朝冠으로 進賢冠·貂蟬冠 혹은 獬豸冠을 썼다. 遼代 服飾은 漢制를 계승하는 것으로 常服은 貴者는 紫裏貂裘를 입었다. 金代 百官朝服에 貂蟬籠巾·七梁冠·六梁冠·四梁冠·三梁冠·監察御史 獬豸冠이 있어 宋制와 같다. 또한 부자들은 秋冬에는 貂鼠·狐貉 혹은 羔皮를 입었다.

元代에 天子 質孫服으로 冬服을 紫貂·銀鼠·白狐·玄狐·猞猁皮毛와 金錦 등, 매우 진귀한 재질을 사용했다. 황제 出獵時에 木樓의 내부는 金錦·

貂皮·銀鼠皮로 장식했다⁵⁴⁾. 明代에도 冠服制는 唐宋遺制를 따랐으며, 文武官 公冠 8梁, 侯·伯은 7梁이며, 모두 籠巾貂蟬을 가하였다.

이상은 모두 上古時代로부터 中原의 中國人에게 알려진 貂皮 특히 滿洲地方의 貂皮·貂裘 등의 관복장식에 관한 諸文獻의 大槪이나, 이것에서 中國인들은 상고부터 만주의 貂皮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관복장식으로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中國인의 복식 및 풍속사상에 貂皮가 결코 등한시 할 수 없는 물건이었음을 고찰할 수 있다.

V. 日本에 보낸 渤海國의 貂皮

발해국의 존재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특히 발해는 일본에 貂皮를 보내고 있어 일본과의 교류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渤海와 日本과의 교류 기록은 [日本書紀]와 [續日本紀]에 실려 있는데, 이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적으로 조작한 기사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⁵⁵⁾.

이와 같은 일본측 史書에 의하면 渤海國使가 일본에 건너간 횡수는 34회(727-919)에 걸쳐서 이다. 그러나 발해국사가 일본에 가져간 물건은 獸皮 약간과 인삼과 꿀 약간 정도이고, 그것도 2·3회 정도이며 그 밖에는 맨 손으로 일본으로 갔다⁵⁶⁾는 것이다.

일본의 사서를 인정한다면 발해국사가 일본 왕을

48) 明月之珠를 말하는 것으로, 暗夜에도 光을 발하는 寶珠이다. [淮南子·說山訓] 明月之珠 出於 蠃蟻, [鄒陽·於獄上書自明書] 明月之珠 夜光之璧

49) [後漢書] 志第30 輿服下, 佩刀 乘與黃金通身貂錯 半鮫魚鱗 金漆錯 雌黃室 五色闌隱室華

50) 林巳奈夫 編,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1976), p.97.

51) [王儉·求解尚書表] 珥貂衣袞之貴 四輔六教之華

52) [南史·朱异傳] 歷官自員外常侍至侍中 四官皆珥貂

53) [唐書] 百官志 二注, 在散騎常侍(中略)分 左右隸門下中書省 皆金蟬 珥貂 左散騎與侍中爲 左貂 右散騎與中書令爲右貂

54) 黃能馥·陳娟娟 編著, 전개서, p.246.

55) 崔在錫, 統一新編·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1993)

56) 상계서, p.367.

위해 가져간 선물은 제1회 때와 제2회 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1회 渤海國使의 파견시에 貂皮 300장이 있다⁵⁷⁾. 제2회 때에 大蟲皮⁵⁸⁾ 7장, 熊皮 7장, 豹皮 6장 人蔘 30斤 蜜 3斛이라고 한다⁵⁹⁾ <표 1>⁶⁰⁾. 3회 이후의 발해국사가 선물을 가져갔다는 치더라도 대체로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발해국사가 일본으로 가져간 선물[續日本紀]

| 내용 \ 회수 | 제1회 | 제2회 |
|---------|------|-----|
| 貂皮 | 300張 | . |
| 大蟲皮 | . | 7張 |
| 熊皮 | . | 7張 |
| 豹皮 | . | 6張 |
| 人蔘 | . | 30斤 |
| 蜜 | . | 3斛 |

이에 대하여 발해국사가 일본에서 가져온 선물은 막대한 것이었다. 자세한 것은 최재석의 책을⁶¹⁾ 참조하기 바란다.

VI. 中原王朝 朝貢物로서의 貂皮

朝貢은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禮物를 獻上하였던 것으로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답례로서 하사품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古代 周代에서부터 이미 제후가 정기적으로 토산품을 휴대하고 직접 천자를 배

알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고 군신지의를 밝혔던 가장 기본적인 신례행위로, 이를 통하여 천자는 여러 제후들을 통제하고 지배하였던 일종의 정치적인 수단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漢代 이후 중국과 주변국 사이에서도 제도화되어 동북아시아의 외교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외교행위를 통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식적으로 무역 및 기타 문화교류를 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원왕조의 조공물 중에서 “貂皮”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관한 기록은 [中國歷代貢品人觀]을 참고하였다⁶²⁾. <표 2>

초피에 관한 기록은 제일 먼저 後漢의 光武帝 建武25년(기원49)에 시작된다. 당시 烏桓에서 “獻奴婢牛馬 及弓虎豹貂皮⁶³⁾”라고 하여 漢帝에 貂皮를 보냈다. 烏桓은 지금의 遼寧省 일대에 거주하던 東胡族의 一支로서 이것은 중원왕조에 공물로 보낸 초피에 대한 첫 記事로, 초피를 처음 사용했던 趙幽의 武靈王(기원전 325-기원전 299)이나 아들 惠文王(기원전 298-기원전 266)의 연대보다 약 350년 뒤의 기사이다.

다음은 232년 三國(魏·蜀·吳)의 하나인 吳朝의 大帝(222-252)에게 “獻貂馬”라 하여 魏의 遼東 太守가 초피를 보내온 것으로, 遼東은 당시 魏의 管轄地域이며 오늘날의 요령성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258년 魏帝인 高貴鄉公(254-260)에게 肅慎으로부터 貂皮가 보내졌다. 속신은 白頭山과 만주일대에서 수렵생활을 했던 古民族⁶⁴⁾이었다. 또한 262년 魏의 元帝(260-265)에게 속신에서 貂皮 400枚를 보내왔다.

57) [續日本紀] 天皇大極殿御 王臣尙寮渤海使等朝賀(中略) 甲寅渤海使高齊德等其王啓并方物上貂皮二百張

58) 大蟲은 虎의 異稱. [搜神記·二] 故虎名 大蟲 亦名 大蟲

59) [續日本紀] 渤海使副使雲路將軍己珍蒙等來朝 十二月戊辰己珍蒙等其王啓并方物: (中略) 大蟲皮(虎皮)熊皮各七張 豹皮六張 人蔘三十斤 蜜三斛

60) 최재석, 전계서, p.362.

61) 상계서.

62) 龔頊·陳雨石·洪炯坤 主編, 中國歷代貢品大觀,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2)

63) [後漢書] 卷90 烏桓鮮卑列傳 第80, 二十二年 匈奴國難 烏桓乘弱擊破之 匈奴轉北徙數千里 漠南地空 帝乃以幣帛賂烏桓 二十五年 遼西烏桓大人郝旦等九百二十二人率衆向化 請闕朝貢 獻奴婢牛馬及弓虎豹貂皮.

64) 肅慎은 춘추전국시대 북방의 夷狄의 나라로 漢代 이후 挹婁로서 알려져 있다. 위진시에 속신이 조공한 사실

<표 2> 中國으로의 歷代貢品

| 년대 | 중국왕조 | 제 목 | 내 용 | 사 서 | 비 고 |
|------|-----------|----------|--|-------------|----------------------------|
| 232 | 吳大帝嘉禾元年 | 遼東太守獻貂馬 | 冬十月 魏遼東太守公孫淵遣校尉宿舒閻中令孫綽稱藩于權 並獻貂馬 | 三國志·吳書·吳主傳 | 遼東 郡國名 地在今遼寧大凌河以東 |
| 258 | 魏高貴鄉公甘露三年 | 肅慎獻貂皮 | 三年夏四月 肅慎來獻柎矢 石弩 弓甲 貂皮等 天子命婦于大將軍府 | 晉書·文帝紀 | 肅慎 古族名 居于東北白頭山一帶 從事狩獵 |
| 262 | 魏元帝景元三年 | 肅慎貢貂皮 | 夏四月 遼東郡言肅慎國遣使重譯入貢 獻其國 貂皮四百枚 | 上同 | 上同 |
| 480 | 齊高帝建元二年 | 芮芮貢貂皮 | 二 三年 芮芮主頻遣使貢獻貂皮雜物 | 南齊書·芮芮虜列傳 | 芮芮 卽柔然 |
| 515 | 梁武帝天監十四年 | 芮芮國獻烏貂裘 | 十四年 遣使獻烏貂裘 | 梁書·諸夷列傳 | 上同 |
| 520 | 梁武帝普通元年 | 滑國獻白貂裘 | 滑國者 車師之別種也 普通元年 又遣使獻黃師子 白貂裘 波斯錦等物 | 上同 | 滑國 古西域國史 漢代開始屬西域都護 地在今新疆一帶 |
| 789 | 唐德宗貞元五年 | 室韋都貢豐貂 | 室韋 貞觀五年 始來貢豐 貂 後入朝 | 新唐書·北狄列傳 | 室韋 地在今蒙古境內 |
| 907 | 後梁太祖開平元年 | 阿保機送貂皮 | 及梁祖建號 阿保機亦遣使送名馬 女樂 貂皮等求封冊 | 資治通鑑·外國列傳第一 | 阿保機 卽遼太祖耶律億 907-926年在位 |
| 951 | 後周太祖廣順元年 | 回鶻貢貂皮 | 周廣順元年二月 遣使並摩尼貢玉關七十有七 白氍 貂皮 犂牛尾 藥物等 | 上同 | 回鶻 又稱回紇 是維吾爾古稱 |
| 964 | 宋太祖乾德二年 | 回鶻貢貂鼠 | 乾德二年 遣使貢 貂鼠等 | 宋史·列傳第二百四十九 | 上同 |
| 1018 | 遼聖宗開泰七年 | 東北五部貢貂皮馬 | 三月辛丑 命東北越卑篤 剖阿卑 奧卑 來 蒲奴里 鐵驪等五部歲貢貂皮六萬五千 馬三百 | 遼史·聖宗七 | 東北五部 爲遼北部各族 |
| 1019 | 遼聖宗開泰八年 | 阻卜貢貂鼠皮 | 秋七月 癸亥 詔阻卜依舊歲貢 貂鼠皮萬 | 上同 | 阻卜 對韃靼的稱號 |
| 1323 | 元英宗至治三年 | 兀者戶獻貂鼠 | 乙卯 征東未吉地兀者戶 以貂鼠 水獺 海狗皮來獻 詔存卹三歲 | 元史·英宗二 | 兀者戶 亦稱吉者 元東北邊部族名 |
| 1626 | 清太祖天命十一年 | 黑龍江貢貂 | 每歲五月 黑龍江將軍玉璽場 選以貢 凡三等 官給價有差 不人者聽焉 | 清稗類鈔·朝貢類 | 黑龍江 卽今黑龍江省 清初爲黑龍江將軍轄區 |
| 1630 | 清太宗天聰四年 | 阿噶獻貂皮 | 天聰四年 阿噶諸部長內附 伊爾札木來 獻駝馬 貂皮 賜宴 命坐大貝勒代善右 以優異之 | 清史稿·列傳第三百七 | 阿噶 古海部名 在今內蒙古 |
| 1637 | 清太宗崇德二年 | 朝鮮貢貂皮 | 帝勅令去明年歲 每年進貢一次 其方物 貂皮百張 | 清史稿·列傳第三百十三 | 據[清史稿]載 天聰七年 帝以朝鮮改盟而征之 |
| 1640 | 清太宗崇德五年 | 吉林貢貂鼠皮 | 賀哲匪雅喀奇勒哩育貂鼠皮二千五百八十二張 | 清稗類鈔·朝貢類 | 吉林所貢貂鼠皮 爲貂之皮 |

사서에 보이는 것은 古名을 취한 것이다. 지금의 송화강·우수리강·흑룡강 유역이다. [左氏] 昭九, 肅慎燕亳 吾北土也 [注] 肅慎 北夷 在 玄菟北三千餘里, [晉書·東夷傳] 肅慎氏 一名 挹婁也

南北朝시대 南朝의 하나인 齊의 高帝(479-482)는 480년 芮芮로부터 貂皮를 받았다. 芮芮는 柔然을 말하는데, [說文]에 나오는 漢代의 貂皮 産地인 丁令의 故地이다. 515년, 梁의 武帝(502-549)는 芮芮 즉 柔然으로부터 烏貂裘를 받았다. 520년, 梁의 武帝는 滑國으로부터 白貂裘를 받았다. 白貂裘는 물론 白貂로 만든 裘衣를 말하는 것으로 제일 名貴한 産物이다. 滑國은 漢代부터 서역도호부의 하나로 지금의 신강일대를 말한다⁶⁵.

789년 唐의 德宗(779-805)은 室韋에서 豊貂를 받았다. 室韋는 지금의 몽고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豊貂는 豊州에서 생산되는 초피를 말하는 것 같은데, 豊州는 지금의 內蒙古 呼和浩特市이다.

907년 五代十國의 하나인 後梁의 太祖(907-912)는 遼의 太祖(907-926) 阿保機에게서 貂皮를 받았는데, 遼는 지금의 東北의 내몽고 지역이었다. 951년 後周의 太祖(951-954)는 回鶻로부터 초피를 받았다. 回鶻은 西遷하여 그一支가 고창국을 세웠고, 回紇이라고도 하며, 維吾爾의 古稱이며, 紫貂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당시의 回鶻은 지금의 바이칼호 남부 외몽고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나중에 신강으로 西遷하였는데, 위의 일은 回鶻이 신강으로 서천하기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다.

964년 宋의 太祖(960-976)는 回鶻로부터 貂鼠를 받았다. 貂鼠는 즉 貂를 말하는 것으로 [本草]에 貂는 밤과 松皮를 즐겨 먹음으로 栗鼠松狗라고도 하였다. 988년 宋의 太宗(976-997)은 일본에서 貂裘一領을 받았다. 日本 北部의 福島·宮城·靑森·岩手 等縣에서는 寒冷地域으로 貂의 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의 貂를 특히 奥州貂라고 하였다.

1018년 遼의 聖宗(982-1031)은 東北五部로부터 貂皮를 받았다. 이곳은 遼의 북부에 있던 시베리아 여러족을 말한다. 이곳의 貂皮는 특히 紫貂皮로서

원래 紫貂는 중국 북방 및 소련의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1019년 遼의 성종은 隸卜으로부터 貂鼠皮를 받았다. 조복은 韃鞬을 말하며 지금의 외몽고지역으로 水貂皮를 생산하였는데 아주 진귀한 수피였다.

1323년 元의 英宗(1320-1323)은 兀者戶로부터 貂鼠를 받았다. 兀者戶는 흑룡강변의 부족명이다. 그러나 명대에 있어서 眞貂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 열거한 내용 외에 단지 “獸皮”라고 표현된 것은 열거하지 않았다. 이것에서 중원왕조가 주변민족으로부터 초피를 조공받은 사실은 후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후한 이전시대에는 초피가 중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대신 狐裘가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VII. 清代 冠服의 貂皮

전국시대 趙國이 초피를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했으며, 청대에는 특히 초피 조공기록이 많았던 것은 원래 청조가 만주족이 세운 왕조이며 그것이 여진족이며 나아가 숙신이었으므로, 초기에 선조들이 초피를 선호한 것이 청조에 이르러서도 관복이나 관모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建州圖錄] 중에 누루하치는 貂皮帽을 쓰고 貂皮護項을 입고 貂皮로 緣飾을 하며, 장군들은 豹皮·水獺皮·山鼠皮를 사용했다. 貂鼠·青鼠·狐貂 혹은 羔皮 등 귀중한 毛皮는 귀족들이 사용하고, 平民은 단지 鹿皮를 입을 수 있었고, 다음으로 牛·馬·猪·羊·狗·魚·蛇 등 종류의 皮衣를 사용했다⁶⁶.

청대는 역대 다른 왕조보다 冠帽와 冠服에 獸皮의 사용이 많았는데, 貂蟬冠의 제도는 없었고 暖帽로 그것을 대신하였다. 그러나 葉夢珠의 [閩世編]에 의하면 清代에 貂蟬이라는 말은 있어 貴官을 간

65) [梁書] 諸夷西北諸戎 滑國傳, 滑國者車師之別種也. 車師는 漢의 西域 36國의 하나로 지금의 新疆省 吐魯番 呂吉 등지의 땅이다

66) 黃能敏·陳娟娟 編著, 전계서, p.334.

주하고 있었다⁶⁷⁾. [紅樓夢]의 “車馬 煥門, 貂蟬滿坐”라는 것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청대 관모에서 초피의 사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皇帝의 朝冠은 겨울에는 薰貂로 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에는 黑狐皮로 만들었다. 吉服冠은 겨울에 海龍·薰貂·紫貂를 사용했다. 皇子와 親王은 朝冠은 겨울에 薰貂로 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까지 靑狐로 만들고, 吉服冠은 겨울에 海龍·薰貂·紫貂를 사용한다. 百官중의 民公⁶⁸⁾의 朝冠은 겨울에 薰貂를 사용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에 靑狐를 사용했다. 文一品·武一品과 郡主부마는 朝冠은 겨울에 薰貂를 사용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까지 靑狐를 사용한다. 文二品·武二品과 縣主부마는 朝冠에 겨울에 薰貂를 사용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까지 貂尾를 사용한다.

皇后的 朝冠은 겨울에 薰貂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靑絨으로 하고, 吉服冠은 薰貂로 한다. 皇子福晉⁶⁹⁾중 民公夫人·侯·伯·子·男夫人 朝冠은 겨울에 薰貂로, 여름에 靑絨으로 하고, 吉服冠은 薰貂로 하여 珊瑚로 頂裝飾을 한다. 一品命婦는 吉服冠은 薰貂로 하고 珊瑚로 頂裝飾을 한다.

다음은 청대 남자복식에서 貂皮의 사용을 알아보자.

청대 남자복식으로 우선 맨 위에 걸치는 端罩⁷⁰⁾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황제·황족 및 近臣·侍衛가 입었으며, 圓領·對襟·平袖로 소매는 腕에 이르고, 옷길이는 膝下에 오고, 對襟에 5개의 鈕扣가 있고 털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 넓은 裘皮服이다. 황제의 端罩는 紫貂로 하고 11월 1일에서 정월 15일에

黑狐를 사용하며 明黃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皇子의 端罩는 紫貂로 하고 金黃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다음으로 親王은 靑狐皮로 하고 月白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親王世子 등의 端罩는 靑狐皮로 하고 月白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鎮國公 등의 端罩는 紫貂로 하고 月白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民公·侯·伯·子·南 以下로 文三品·武二品の 端罩는 모두 貂皮로 하고 藍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一等待衛의 端罩는 狽狽皮에 月白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二等待衛의 端罩는 紅豹皮에 素黃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三等待衛 등의 端罩는 黃豹皮로 하고 月白緞으로 안감을 넣는다.

皇帝의 朝服은 披領과 上衣下裳이 連接되어 있는 부분에 裳積이 있고 소매에 馬蹄袖가 있다.

황제의 朝服은 겨울에 明黃色으로 下裳의 도련부분과 披領은 紫貂로 하고, 馬蹄袖는 薰貂로 한다. 皇子親王 등의 朝服은 金黃色이며 下裳의 도련부분과 披領은 紫貂로 하고, 馬蹄袖는 薰貂로 한다. 民公·侯·伯의 朝服은 藍 혹은 靑色으로 하고 下裳 도련부분과 披領은 紫貂로 하고 馬蹄袖는 薰貂로 한다. 行褂는 圓領對襟 平袖로, 乾隆年間에는 玄虎·紫貂·海龍⁷¹⁾·狽狽⁷²⁾ 등 고귀한裘로 만든 翻毛馬褂가 유행하였다.

婦女冠服은 皇太后·皇后的 朝袍는 披領 및 袖端에 貂皮邊을 두른다.

이상은 清代 冠服에 있어 貂皮 사용의 실례를 살펴보았다. 청대는 원래 異民族의 征服王朝로 滿族의 전신인 女眞族은 尙武의인 游牧民族으로서의 고

67) 葉夢珠 [閱世編] 卷八 冠服, 康熙九十年間 復申明服飾之禁 命服悉照前式 貉 裘狽狽獬 非親王大臣不得服 貂帽 貂領 素花緞 非士子不得服

68) 清代, 漢人으로서 公封되는 것. 一等公·二等公·三等公이 있음

69) 清代에 親王·親王의 世子·郡王·郡王 長子의 正室을 말함

70) 清代의 章服. [閱處光陰] 國朝章服之 極珍貴者爲元狐裘 漢文曰 端罩 雖 親王 亦非賜賚不能服 若既薨沒 卽當本 緞 率皆賞還 方敢藏於家 其式似表衣而較寬 長毛外向左右袂微高 各懸飄帶

71) 獵虎·海獵·獺獺라고도 하며, 전체적으로 농갈색이며 털은 稠密하고 부드럽고 광택이 있어 모피는 珍重되고 있었으며, 북태평양 근해에 서식하고 바위나 해조상에서 휴식함

72) 원숭이와 여우의 잡종

유한 생활방식과 복식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역대의 다른 王朝보다 服飾에서 毛皮의 사용을 많이 볼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貂皮를 제일 珍貴한 것으로 취급하였다. 초피 중에도 燕貂는 冠帽에 사용하고, 기타 복식에는 紫貂를 제일 고급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청대 관리는 冬朝冠·冬端罩·朝袍·行褂 등에 貂皮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700년 康熙39년에 貂皮袍를 賞賜하는 규정이 있어, 원칙적으로 三品이상의 文武官에 착용을 허락하였으나 乾隆이후는 五品이상의 관직에게도 초피 사용이 허락되었다⁷³⁾.

이와 같은 관복에 있어 초피의 수요가 증대하게 됨에 따라, 청조는 변경 소수민족에게 초피를 進貢하도록 강요하였다.

VIII. 清代 少數民族 貢物로서의 貂皮

1616년 後金の 누루하치(努爾哈赤)는 黑龍江上流 지역을 통일한 후 當地에 거주하고 있던 薩哈爾察部(達斡爾族)민족을 後金에 服屬시켜 臣屬관계를 맺는다.

<표 3>은 達斡爾族의 공초사실을 [清太宗實錄]에서 발췌한 것이다.

나아가 청조가 흑룡강 중하류의 광대한 토지를 통일한 후에는 그 지역 민족에게 공초를 하도록 하였다. 1750년 각 족의 貢貂民戶는 2300餘戶였고, 1791년에는 吉林의 邊民 2398戶에게 매년 貂皮 1張씩을 납세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索倫鄂溫克族의 공초사실을 보자.

索倫部는 外興安嶺 이남과 흑룡강 상류의 광대한 지역을 말하며 鄂溫克族·일부 達斡爾族·鄂倫春族을 포함한다. 清朝는 索倫부 각 지구를 통일하고, 각 부족 추장에게 章京(佐領)을 임명하고, 나아가 흑룡강북 索倫부에 兵將을 두어 각 부족 두목에게 清朝에 납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明末 清初에 흑룡강북 索倫부의 광대한 지구를 清朝 管轄하에 두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 4>는 黑龍江省 索倫部族에 대한 貢貂를 [清太宗實錄]에서 기록한 것이다.

<표 5>는 마이칼호 이동 및 흑룡강 상류 鄂溫克使鹿部가 清朝에 納貢한 역사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지구의 사록부는 청조에 귀순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중엽부터 러시아는 중국의 明清 양조의 교체혼란기를 이용하여 清兵이 入關에 주력함에 광대한 黑龍江 방비가 취약해짐을 틈타 침략하기 시작하였다. 1643년, 1651년 러시아군은 鄂溫

<표 3> 達斡爾族의 貢貂

| 年 | 貢物 | 來朝人 |
|------|----------------|-----------------|
| 1627 | 貢貂·狐·狹狽狽皮 | 薩哈爾察部落60人 |
| 1635 | 貢貂皮1818張 | 達斡爾族頭領 巴爾達齊率44人 |
| 1635 | 貢貂皮·貂皮 | 索倫部頭目 |
| 1636 | 貢貂皮·狐皮 | 達斡爾族頭領 巴爾達齊 |
| 1637 | 貂狐皮206張·貂狐衣服7領 | 額蘇里屯內俄倫扎爾固齊9人 |
| 1637 | 貢獸馬匹·貂皮 | 索倫首領博穆博果爾引率57人 |
| 1652 | 貂皮 | 鄂溫克頭人虎爾格 |
| 1653 | 貢貂皮 | 索頭目日噶爾達爾漢 |
| 1669 | 貂皮 | 索倫部頭人達爾巴爾 |

73) [會典事例] (前略) 貂衣不得賞五品以下官

<표 4> 索倫部族의 貢貂

| 年 | 공물 | 貢物 | 來朝人 |
|------|----|------------|---------------------------|
| 1637 | | | 索倫部鄂溫克族人酋長博木博果爾8人入貢 |
| 1638 | | 納貂皮·狍獐皮 貢品 | 上同 |
| 1642 | | 賜貢貂 | 索倫部落牛·象章京克爾物米等14人 |
| 1643 | | 貢貂 | 上同 崇內等 |
| 1644 | | 貢貂 | 上同 敖爾拖木爾等 |
| 1648 | | 貢貂皮 | 上同 阿濟布等 |
| 1649 | | 貢貂 | 索倫部落 |
| 1652 | | 進貢貂皮 | 索倫部落 索朗噶達爾汗等 |
| 1653 | | 進攻貂皮 | 索倫部落 富拉屯 |
| 1653 | | 進貢貂皮 | 索倫部落巴達克圖等 |
| 1654 | | 內貢貂皮 | 索倫部落索朗噶達爾汗等 |
| 1655 | | 進貢貂皮 | 索倫部落馬魯凱等 |
| 1656 | | 貢貂皮 | 索倫部落達爾巴等 |
| 1657 | | 鄂進貢貂皮 | 溫克佐領察太·木朱虎·蘇爾圖爾鄂溫克副都總托木素等 |
| 1658 | | | |
| 1659 | | | |
| 1660 | | | |

<표 5> 使鹿部の 貢貂

| 年 | 공물 | 貢物 | 來朝人 |
|------|----|------|-------------|
| 1642 | | 納貢貂皮 | 使鹿部頭人墨騰格等來朝 |
| 1646 | | 貢貂 | 使鹿部頭人喇巴奇等來朝 |
| 1649 | | 貢貂 | 使鹿部 |
| 1650 | | 進貢貂皮 | 使鹿國 |
| 1650 | | 貢貂皮 | 使鹿部頭人布勤 |
| 1664 | | 貢貂 | 使鹿部頭人布勒 |

克族 지구에 침입하였고, 1654년에는 바이칼호 使鹿鄂溫克部와 布利亞特部를 점령하고, 1658년에는 尼布楚一帶, 石勒喀河上流에 침입하여 鄂溫克族을 약탈하고 사람을 노예로 하여 貂皮를 강요하였다.

한 사람의 부녀자는 6장, 기혼남자는 15장, 미혼남자는 10장의 貂皮로 교환하였다⁷⁴⁾고 한다. 그리하여 康熙22년(1683), 淸朝廷은 러시아정부에 강하게 항의하였다⁷⁵⁾.

74) 呂光天, 淸朝初期的鄂溫克族, 黑龍江文物叢刊(1982-3), p.18.

75) [朔方備乘] 卷1, 阻我索倫貢貂

나아가 19세기 중엽 러시아는 계속하여 중국 동북의 광대한 변강지구를 점령한 후, 이 지구의 각부 민족을 통치하게 되어 특별한 것은 청조에 貢貂를 할 수 없었다.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에는 黑貂의 수렵량이 증대되어 貂皮는 黑貂가 250원이고, 수렵인 1인당 일년에 10장 이상의 貂皮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灰鼠皮가 수입원이 되었다. 鄂溫克族은 수렵상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貂皮·灰鼠皮 외에 鹿茸·鹿尾 등이 귀중한 상품으로 되었다⁷⁵⁾.

이상은 명말청초의 중국의 동북 변방소수민족의 공초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中國 東北地方의 貂皮는 예전부터 “關東⁷⁷⁾ 三寶”, 혹은 “東北의 三寶”라 하여 매우 珍重한 土産品의 하나였다. 貂皮가 明貴하여 各民族은 自古로 貂神의 신앙도 갖고 있었으며, 이들을 交易手段으로도 사용하였고, 중원왕조에 대한 가장 진귀한 진공품이었다. 나아가 청대에 들어서는 貢貂의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으로 黑龍江·우수리강·松花江의 3江이 합쳐지는 연안에서 활동하는 소수민족이 貢貂部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에서, 이 곳에서 많은 貂皮가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⁸⁾.

그러나 淸初에 중국의 동북은 러시아군의 군사침략으로, 淸 朝廷은 바이칼호지구 및 黑龍江上中流 지구를 통치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游獵山林의 鄂倫春族과 鄂溫克族을 비롯한 변방 소수민족을 관병화시켜 邊方防禦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咸豐 10년(1860), 淸朝는 러시아와 북경 조약을 맺어 우수리강 以東을 러시아에게 내어 주

게되었다. 같은 해, 흑룡강 장군 特普이 淸 朝廷에 대하여 매년 가을에 黑龍江과 외흥안령에 거주하는 이들 민족에게 貂皮를 진공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 조정에 대한 兵役과 貢貂로 이들은 심각한 부담을 받게되고 邊方遠征에 지친 병사들은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여 병으로 객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나아가 貢貂에 있어서도 康熙年間에 西淸의 [黑龍江外記] 卷五에 의하면 “官兵散戶를 막론하고, 身長이 5尺이 되는 壯丁은 매년 초피 한 장을 공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는데⁷⁹⁾, 鄂倫春族이 族兵⁸⁰⁾으로 편입된 이후 定制가 되었다⁸¹⁾. 이로 인하여 흥안령 지구의 초원은 貂皮資源이 갈수록 고갈되었다.

그리고 매년 음력 오월이면, 官方은 齊齊哈爾에서는 貢納貂皮를 중심으로 하는 貢市와 互市의 집회 활동을 거행하였다. 각부 각족에 소속하는 官兵은 수렵한 초피를 휴대하고 함께 모여, 일시에 각종 초피를 三等으로 분류하여 합격자는 賞을 주고, 불합격품은 그 자리에서 매각하였다. 매년 이 집회를 통하여 淸 朝廷은 五千餘張의 各色 貂皮를 수거하였다고 한다⁸²⁾.

그리고 淸 朝廷은 貢貂制度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691년부터 악륄춘족 지구에 “安達” 혹은 “諳達”이라고 칭하는 교역관리를 파견하여 포획된 초피를 건어들여 淸 朝廷에 보냈다. 이외에도 수렵과 기타 활동을 마치고 휴가도 겸하여 일년에 한번 열리는 “楚勒罕”이라는 交易會에 참가한다. 5월 북방의 春暖 花開의 好時節에 흑룡강 양안의 각족 전 가

76) 呂光天, 解放前鄂溫克族的社會經濟與文物習俗, 黑龍江文物叢刊(1983-4), p.63.

77) 중국의 산해관 이동을 말하여, 요녕·길림·흑룡강의 삼성을 관동 삼성이라 부른다.

78) 寧銳·淡懿誠 主編, 中國民俗趣談, 三秦出版社(西安,1993), p.201.

79) [黑龍江述略] 黑龍江省諸部歸順之初 隨朝納貂 略表臣服之義 蓋無年限 數日定制

80) 旗는 清代 滿洲蒙古의 行制區劃의 하나. 內地의 縣과 같음

81) 西淸, [黑龍江外記] 卷5, 無間官兵散戶 身長五尺者 歲納貂皮一張 定制也

82) 徐宗亮, [黑龍江述略] 卷4

족이 교역회에 참석한다. 대홍안령 서부의 呼倫貝爾 초원상의 牧民은 牛馬를 타고, 達斡爾族 農民은 獵물을 타고 온다. 이 楚勒罕은 약 1달로 이 기간에 각족은 수렵품을 일년간 필요한 생필품으로 교환한다⁸³⁾. 특히 鄂倫春族에게 중대한 가치가 있는 狩獵品은 鹿茸·熊膽類의 藥材 및 貂皮로, 이것을 생필품과 교환한다.

清代 乾隆16년의 [皇清職貢圖]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諸蠻을 圖示한 것으로 鄂倫樺·奇稜·庫野·費雅喀·恰喀拉·七姓·赫哲 등 당시의 동북지방의 여러민족들이 清朝에 “歲貢貂皮”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

대대로 黑龍江·松花江·우수리강 유역 연안거주의 赫哲族도 여름은 捕魚로, 겨울이면 貂를 狩獵하여 생계를 위한 財貨를 얻고 있었다⁸⁴⁾. 赫哲족은 紫貂를 생산하며, 역대로 鄂倫春族이나 鄂溫克族이 使鹿部라 하는 것에 반하여 赫哲族은 使犬部⁸⁵⁾라고 한다. [柳邊紀略]에 의하면 魚皮國에서 모두 貂皮를 생산할 수 있고, 해마다 吉林省의 寧古塔에 2萬餘의 交易者가 모여 貢貂를 했다고 한다⁸⁶⁾. 초피는 경제적으로 교역의 가치가 커서 가령 초피 한두장으로 布料 한匹을 바꿀수 있었다고 한다⁸⁷⁾. 청조정은 赫哲족에게도 貢貂를 강요하였으며 나아가 淸朝廷은 滿族과 赫哲族의 혼인관계를 장려하여, 매년 貂皮 1장을 보내면 衣冠什物을 내려 “烏林”이란 賞을 내렸다고 한다.

[元章典]에도 元代는 貂皮로 다른 모피를 교환하는 기준을 삼아, 1張의 虎皮는 50張의 貂皮, 1張의 豹皮는 40張의 貂皮, 1張의 狐皮는 2張의 貂皮 가치

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淸初에는 16張의 貂皮로 1匹의 말을 바꿀수 있었다고 하며, 나아가 貂皮로서 生必需品과 布匹을 교환할 수 있는 등 貂皮는 민간 경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IX. 밋는말

清代에 東北의 寒冷한 森林地帶에 거주하는 少數民族은 淸朝에 貢貂하였다는 기록이 史書에 散見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戰國時代 趙國 武靈王의 貂蟬冠과 관련이 없지 않음이라는 假說을 갖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上古부터 中國人은 여러종류의 獸皮裘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貂皮의 언급이 없는 것은 貂皮가 귀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史料가 적었던 것은 貂皮가 대부분 만주방면에서 생산되어 狐羊皮에 비하여 그 용도가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春秋戰國時代에 貂裘는 그 가치가 千金이라 하고 있으며, 漢代 이후는 貂裘와 冠服의 장식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元代에는 물물거래에 貂皮로 기준을 삼아 交易尺度로 하였다. 清代는 元制를 채용하였으나 가치에 변화가 있어, 正公大臣이나 高級官吏는 上賜特許를 받지 않으면 貂皮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貂皮는 중국 동북의 고한지구와 백두산의 森林地方이 그 產地로 역대로 동서양인에게 애용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近世의 러시아 동방진출도 동북아시아 특히 北方方面의 毛皮에 지

83) [黑龍江外紀] 卷5

84) [鷄林舊聞錄]赫哲人夏捕魚作糧 冬捕貂易貨以爲生計

85) 明·清代의 赫哲族을 말한다. 赫哲족이 교통이나 수렵에 犬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명칭이 되었음. [皇朝文獻通考·輿地考·盛京] 自寧古塔東七百餘里 外沿松花江 大烏拉江 直至海處兩岸 爲赫哲費雅喀部所居 其俗 不知耕種 以捕魚爲生 其來往行獵 并皆以犬 卽所謂使犬部也

86) [柳邊紀略] 卷3, 上貂皆產魚皮國 歲至寧古塔交易者二萬餘 而貢貂不與焉

87) [赫哲風土記] 衣服用布帛者十無一二 寒時著狗 鹿皮 暖時則以熟成魚皮制衣服之 客人販布于此 每匹可換貂皮一二張 故不常服用



欽定四庫全書
赫哲婦



赫哲



此種人其七姓地方之馬扎拉村
一、信鬼怪男女裸皮為帽又用虎骨
二、其衣履多用魚皮而或以魚皮
三、亦與熊皮相似以稱其野蠻
四、其水陸則乘木楸用大鹿之其工
五、其習俗甚遠紹皮

欽定四庫全書
七姓婦



七姓



七姓在三姓之西二百餘里之馬扎拉洪科等
處佳多孳探地產菽麥雜知耕種而專以漁獵
為生遇冬月水堅則足踏木板溜冰而射其婦
女亦喜伏芻捕貂衣帽多以貂為之上語謂之
烏迪勒話歲進貂皮

欽定四庫全書
鄂倫綽婦



鄂倫綽



寧古塔之東北海島一帶居者所云少海之北
三面阻海人依嶼散居有魚鹽之利者入戶數
種鄂倫綽其一也在道海之多雅河強於山丹
牧男女皆披髮跣足以養角鹿頭面為上所居
以魚皮為帳住居弱歲進貂皮

<그림 1> 東北少數民族의 歲貢貂皮(皇清職貢圖)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은 결코 보아 넘길 수 없다. 즉 중국의 동북방면의 모피는 동양 근세사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근세사만이 아니라 고대사에 있어서도 역시 同方面의 獸皮毛皮는 土地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 獻納되었다.

이상과 같은 貂皮는, 貢貂로 충당하여 유구한 역사를 갖고 동북지구 소수민족이 중원왕조에 進貢한 일종의 토산품인 것이다. 清代는 특히 中國服飾史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滿族은 滿洲族의 略稱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邊疆에서 狩獵生活를 해오다가 紀元前 11세기 西周시대의 이미 武王에게 進貢한 사실이 있다. 漢 이후 史書에 挾婁·勿吉·靺鞨이 바로 女眞族이 되었으며, 이들 모두 肅慎族의 後裔이다. 明朝의 女眞은 바로 滿洲族의 前身이며 이들은 역사적으로 중원왕조에 貂皮를 비롯한 토산품을 진공 해왔다. 그러나 滿族의 清朝는 반대로 邊疆 少數民族에게 貂皮를 제공받고 있어, 역사는 참말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戰國時代 趙武靈王의 貂蟬冠에서 비롯된 貂皮는 중국 역대에 冠服과 冠飾의 장식물로서 애호되어 清代에까지 이어져왔다. 풍부한 초피자원은 교역의 수단으로 변방민족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였을 뿐 아니라 朝貢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清代에 이르러는 貢貂는 자발적인 貢物이 아닌 강제적인 朝貢品으로까지 格上되어 동북소수민족들을 괴롭혀왔으며, 나아가 초피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게 되었다. 동북지방 貂皮의 古俗史料는 古代 經濟史와 民族文化史에 모두 중요한 資料이다.

참고문헌

[周禮][戰國策][墨子][史記][後漢書][三國志][晉書漢書][續日本紀][五代史][事物紀原][升庵外集][宋史][吳志][南史][梁書][唐書][胡服考][本草][清典事例][清太宗實錄][黑龍江述略][黑龍江外記]

[清稗類鈔][赫哲風土記][柳邊紀略]

- 呂光天, 清朝初期的鄂溫克族, 黑龍江文物叢刊(1982-3)
- , 解放前鄂溫克族的社會經濟與文化習俗, 黑龍江文物叢刊(1983-4)
- 龔預·陳雨石·洪炯坤 主編, 中國歷代貢品大觀, 上海社會科學院(上海,1992)
- 寧銳·淡懿誠 主編, 中國民俗趣談, 三秦出版社(西安,1993)
- 黃能馥·陳娟娟, 中國服裝史, 中國旅遊出版社(北京,1995)
- 中山久四郎, 貂皮貂裘考(史潮4-3)
- 林巳奈夫 編,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京都,1976)
- 金英淑 編著, 韓國服飾史資料選集 上古·高麗篇, 東洋服飾研究院(1985)
- 崔在錫, 統一新羅·渤海와 日本의 關係, 一志社(1993)
- 許進雄, 中國古代社會, 知識產業社(1993)

ABSTRACT

A Study on Cho-pi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the fact that minority rac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contributed sable skin to the Qing Dynasty might be related to Cho-Sun of King Muryong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because documents are available here and there. The Chinese had been using fur clothing since ancient times, but we cannot find any mention that they had used sable skin. This fact shows that sable skin was not widely used because of its rarity. Cho-pi had been used in making costume on a large scale from the period of the Han Dynasty to the end of

the Qing Dynasty. Cho-pi was very rare and it was used as a measure of bartering. China met the demand of Cho-pi by the Cho-pi contributions of the frontier minority races. It might be that the high demand of Cho-pi in the Qing Dynasty

forced minority races to contribute Cho-pi. The documents concerning Cho-pi in the north-eastern region are of great importance not only to the history of costume but also to the history of ancient economy and national culture.